

시니어 기술창업을 위한 CBI 추진방안 연구 - 핀란드 브릿지 프로그램 기반을 중심으로 -

유순덕, 최광돈
한세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Research on the CBI, senior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romotion - Based on Finland Bridge Program-

Soonduck Yoo, Kwangdon Choi
Dept. of e-Business,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고용 없는 성장과 고령화로 진입하는 국내경제 환경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부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창업지원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의 브릿지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브릿지의 성공요인은 기업 주도형 시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시니어들의 창업성공에 중심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업기업과의 적절한 교류 기회 확대와 민간기업의 사회환원 마인드 확산이다 국내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는 CBI(Corporate Business Incubator)를 통한 방안을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정책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안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여러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분석을 통해 기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어 : 시니어 기술창업, 브릿지프로그램, 창업지원정책, CBI,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entrepreneurship as a mean to overcome problems that arise from economic growth with no job growth and with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senior (elderly) entrepreneurship based on technology. It examines and defines restraints of various public and private sponsor programs for senior entrepreneurship. In comparison, Bridge Program of Finland was studied and its success factors are presented. Some of these success factors are enterprise-driven program operation, diverse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successful senior entrepreneurship, providing networking opportunities among entrepreneurs, and increased awareness in social responsibility of private enterprises. This paper suggests CBI (Corporate Business Incubator) in order to promote senior entrepreneurship. This study is expected to foster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rough utilizing increased elderly population in today's aging demographic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be able to identify direction for government's role in boosting senior entrepreneurship.

Key Words : Senior Startup, Bridge Program, Startup supporting policy, CBI, Startup support education program

Received 7 August 2014, Revised 11 September 2014
Accepted 20 Jan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Kwang don Choi(Hansei University)
Email: harry-66@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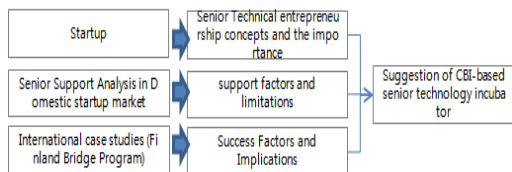
ISSN: 1738-1916

1. 서론

창업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핵심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유럽연합은 벤처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정비전 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 배경에는 애플,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사례처럼 기술기반의 창업 및 벤처기업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기술기반 창업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경우 초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가장 빠른 초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시니어 퇴직자 경제 환경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추진방향은 다음 [Fig. 1]와 같이 창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청년 창업과 시니어 창업으로 분류하고 창업의 특징을 생계형과 기술형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창업지원으로 시니어 기술창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정부와 민간의 시니어 창업지원의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해외의 시니어 창업지원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시니어 창업을 위한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인 Bridge 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징인 성공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부합되는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ethodology

본 연구는 창업지원 분야 중에서 시니어 기술창업 활성화 조성으로 국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재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서

의 의의를 가진다. 다음은 본 연구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창업

2.1 기술형 창업과 시니어창업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창업 또는 창업기업(startup)이란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제휴 또는 임시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새로 생성, 시장 개발 및 연구단계에 있는 하나의 기업을 의미한다. 창업을 통해 창업기업이 탄생한다. 그리고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모험기업, 지식 집약적 중소기업, 연구 개발형 기업, 하이테크 기업 등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Risky Business, Venture Company, High Technology Business, NTBF(New Technology Based Firm) 등으로 불리 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부분중에서 기술형 창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김근영, 이갑수 (2004)에 따르면, 기술형 창업이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12]. 기술형 창업기업의 특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노하우를 자산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중소기업으로 고 위험과 고성공과를 제공한다[17,18]. 기술창업자(Technology based Entrepreneur)란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창업을 통하여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인지하고 있는 자원의 불균형을 혁신적인 사고나 방법으로 극복하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올바른 사람'을 말한다[6,29].

상기와는 달리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2)에 따르면 생계형창업이란 창업자들이 다른 노동의 선택권이 없고 소득원이 필요한(have no other work options and need a source of income)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창업은 기술을 통한 모험정신 기반의 창업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기업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창업활동을 연령측면에서 논의하면, 청년창업과 시니어 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창업측면에서 청년기는 15세에서 39세까지로 여겨지고 있다. 즉,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연령대(15세)에 도달한 후 상당한 직업경험을 축

적할 수 있는 25년간을 청년창업의 시기로 보는 것이다 [8]. 또한 창업이란 다른 기업의 인수나 합병에 의하여 경영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1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체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년창업은 39세 이전에 개별 혹은 공동으로 신규 업체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된다[13,16,28,30].

시니어를 일반적으로 만 40세 이상의 남녀라고 정의하는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정책에 견주어 본다면, 모든 창업자 중에서 만 40세 이상의 창업을 시니어 창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연령에 근거해서 시니어를 분류하는 것은 하지만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구분해서 시니어 창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시니어 적 특성, 즉 일정기간의 사회생활 (최소 10년-25년)을 한 후, 사회생활 경력이나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를 시니어 창업이라고 구분한다.

지금까지 기술형 창업과 시니어창업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은 창업을 지원하는 하는 형태인 CBI(Corporate business incubators)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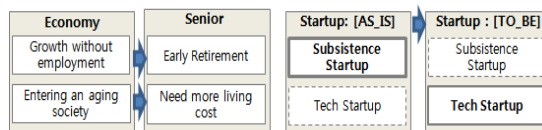
2.2 CBI 개념 및 역할

CBI(Corporate business incubators)는 기업형 Business incubators 로서 창업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금융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경제적(Financial) 목적뿐만 아니라 전략적(strategic) 목적 추구를 위한 행위로서 기업의 지원 형태에 따라 추진형, 개척형, 강화형, 수동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추진형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표준의 도입 또는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척형은 미개발 혹은 미개발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둬으로써 잠재적인 사업영역 확대를 추구한다. 강화형은 투자기업이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투자기업의 전략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투자기업과 벤처 간 관계는 추진형 보다는 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수동형은 재무적 수익 추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 투자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유연한 관계가 형성된다.[38] 다음은 국내 시니어 기술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3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의 중요성

국내는 2000년대 초반의 고도성장단계를 지나고 현재는 고용 없는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우수한 젊은 인재를 선호하고 기업내부 인력들이 조기퇴직 인력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 국가적으로 시니어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초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가 수십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빠른 초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10,11]. 또한 국내의 경우 고용연장에 대한 기업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퇴직이 시작된 상황이다. 평균수명은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이지만, 퇴직연령은 약 7년 정도 앞서고 있고, 연금소득 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늘어난 수명으로 생계를 위한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퇴직자의 많은 수가 커피숍, 치킨 집 등 소상공인 창업형태로서 생계형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 업무로서 기존에 보유한 경력에 대한 단절로 사회공헌도가 적게 되고 이에 따른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향후 창업시장의 바람직한 방향은 [Fig.2]에서처럼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창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니어 기술창업의 특징은 high risk, high return을 패턴으로 하는 청년창업과는 달리 risk를 낮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5,7].



[Fig. 2] 시니어 창업지원방향

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분이며 국내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단기간에 고용연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간 초 고령화 사회로 이행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한다.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들의 창업기업을 통한 성공확률이 높아서 창업으로 유도가 바람직하다. 김영수(2013)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이 성장한 벤처기업의 창업당시 창업주의 연령은 40대 이상의 경우가 52.9%로 가장 많았다. 창업자 연령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40대가 43.4%로 가장 많고, 30대가 39.3%, 50대 12.5%, 20대 이하 3.5%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연령분포는 40대가 40.8%로 가장 많고, 50대가 39.6%, 30대가 10.1%, 60대 이상이 8.8%였고, 20대는 0.7%이며 창업주와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88.6%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성공한 창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40대 이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하게 존재한 인력이며 실제로 기업이 성장하여 운용하는 경우들이다. 이 인력이 시장에서 창업기업을 통한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시니어 인력의 재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니어 인력활용을 통해 생산 판매 활동증대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해야 한다.

셋째, 시니어 인력의 노하우 재활용 미비와 경력단절은 국가적으로는 손실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업형태로 갈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기술형 창업과 시니어창업에 대하여 고찰하고 다음은 시니어 기술창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4 시니어 창업 지원현황

국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전용 창업은 2013년 기준 총 33.3억 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전체 창업지원예산과 비교하면, 시니어 전용 창업 지원 규모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시니어 전용 창업에 대한 지원 현황은 다음 <Table 1>와 같다[1,2,3,31].

창업 역량강화 교육은 전국의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위치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부 주도기관, 대학 등 민간기관이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을 포함한 시니어 창업지원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은 <Table 2>와 같이 2014년 기준 총 15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중과 주말에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기간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 강의는 선택형, 집중형, 일반형 창업교육으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Table 1> Government senior incubator status (2013)

Project	Applicants		Budget (One hundred million won)
	Condition	Organizing Agencies	
Senior Startup			33.3
Entrepreneurship capacity building training		Private institutions	12.3
Senior business plaza	More than 40 years pre-founder	Government or university	1.4
Senior CEO customizable business incubator		Government or university	19.6

<Table 2> 2014 Seni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stitutions (total 15)

Organization	Location	Lecturing period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kangwon	Jun-July Mon/Fri/Sat
Daegu Technopark	Daegu-Gyeongbuk	May-Jun, Mon/Sat
Daegu University	Daegu-Gyeongbuk	July-August, Mon/Fri/Sat
Daejeon, Chungnam	Daejeon, Chungnam	Jun, Sat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Seoul	Septembe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and Ulsan	May/Tue/Fri
Soongsil University	Seoul	May-Jun/Sa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October-November/Wen/Sat
Incheon information service	Incheon	July/Wen/Thu
Jeonju venture business areas development & promotion association	Jeonbuk	April-Ma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May/Fri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yonggi	Jun-July/Sat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Jun-July/Weekend
Hanyang University	Seoul	August-September/Wen/Sat

시니어 비즈플라자 주요내용은 지자체 · 대학의 유희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에게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창업 지원센터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40세 이상 창업희망자(업종전환자 포함)들이다.

퇴직자 맞춤형 시니어 창업지원은 시니어 적합 창업 분야(6대 분야 40개 업종)인 컨설팅, 지식서비스, 스포츠·레저, 실버도우미, 소셜 네트워크, 귀농서비스, 농·특산물 재배·가공, IT서비스업,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시니어 CEO 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은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고,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충남, 경기, 부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경제진흥원)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 공간 제공(선택)→①실전창업교육→②창업·경영컨설팅→③창업네트워킹→④사업화지원비 지원 등 단계별 사업화 패키지 지원이다[21,22,32,33,34].

정부의 시니어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창업지원을 위해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형태는 교육과 창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타 사업대비 시니어 창업지원 규모도 적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니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문화는 재직자가 창업을 준비 하려고 하는 경우 재직기업에게 알리게 되면 반계 될 불이익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에는 쉽지 않다. 만약 기업이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조성되면 재직자들도 창업 마인드 확보 및 도전정신 함양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처럼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는 민간 기업이 고용 인력을 직접 교육 및 보육을 통해 창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적인 인프라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민간에서는 주로 시니어 창업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창업지원 형태로 창업자의 연령 구분 없이 벤처 캐피탈이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19].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도 2009년 들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2010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벤처캐피탈 중에서도 삼성(삼성벤처투자), CJ(CJ창업투자), 두산(네오폐력스), 한화(한화 인베스트먼트), 코오롱(코오롱 인베스트먼트) 등

약 40여개 기업이 CVC(Cooperative Venture Capital)를 운영 중이다[4,9,23]. 그러나 시니어 기술창업을 CBI(Cooperate Venture Incubator)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CBI는 네이버, KT, SKT 등 일부 대기업이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의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및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미흡하다.

다음은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의 한계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5 국내 시니어 창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요인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은 국가적으로 인력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시니어를 위한 창업지원교육 프로그램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주도적으로 시니어 기술 창업지원 하는 환경조성이 미흡하다. 국내는 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니어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조기 퇴직하는 시니어 직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둘째, 기업들이 고용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동반성장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고용 인력의 성장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책임의식이 부재하다. 창업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시니어 인력에 대한 창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동반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인드 부족이다[35,36,37]. 셋째, 도전적인 창업문화 형성이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12년 이윤주의 연구인 기업가 정신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르면, 시니어들이 도전정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기술 창업에 진입하려는 의지가 적다[24,25].

다음은 해외 성공적인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사례의 성공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3. 해외 시니어 창업지원 사례연구

3.1 핀란드의 창업환경 및 Bridge 프로그램

노키아의 부진으로 인해 핀란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제공했지만 궁극적으로 소기업 증가로 핀란드 경제의 기업 다양성과 경제력 강화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3년 하버드 기고에 따르면,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는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기업가정신을 부흥 시킨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빠른 기술발달 및 환경에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창업기업 육성 환경을 통해 핀란드의 경제적 체질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다. 현재 핀란드의 시니어 창업지원 성공모델인 Bridge 프로그램을 덴마크, 영국, 미국, 인도, 루마니아, 독일, 헝가리,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14].

핀란드의 Bridge 프로그램은 핀란드의 대표기업인 노키아의 파산으로 고용시장에 등장했던 노동력을 노키아 재단이 주도적으로 창업 지원 교육을 통해 시장에 창업 인력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경우이다. 핀란드의 창업활성화 사업인 노키아 재단이 운영한 시니어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Bridge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11년도에 노키아는 해고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을 희망할 경우 2만5천유로의 창업 지원금 및 팀 구성, 커리어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다. 노키아 Bridge 프로그램 지원 분야는 1) 노키아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 2) 노키아 밖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우 5) 자신의 진로를 창조하는 경우이다. 이 창업 지원 통해 IT 분야의 클러스터 협력강화가 이루어지고 높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업 생태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3.2 Bridge 프로그램 특징 및 성공요인

Bridge 프로그램의 특징 및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26].

첫째,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Bridge 프로그램은 노키아 재단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내부 직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그램이다.

둘째, 창업성공에 중심의 둔 교육으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여러 분야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즉 노키아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지원함으로써 철저하게 창업의 성공에 중심의 둔 교육을 진행했다. 이

는 기업이 고용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동반 성장의식 문화에 기인 한 것이다.

셋째, 창업교육으로 도전정신 함양과 창업문화 형성으로 대량 퇴직이라는 환경 극복에 기여를 했다. 모바일 엔지니어들이 창업기업으로 진입함으로써 창업에 도전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앵그리버드 서비스를 출시한 로비오이다.

넷째, 창업활성화의 방안으로 IT 분야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창업기반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받는 재직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이는 IT 분야의 클러스터 협력강화가 이루어지고 높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

<Table 3> Comparison with domestic environmental and Bridge program

Category	Domestic limitation	Bridge Considerations
Incubator	Lack of corporate-led	led to companies
Employment growth	lack of corporate growth mindset	Mutual growth mindset of the Nokia Foundation
Challenge	Relatively Poor	Momentum of Mind Spread
Network significance	Poor foundation for building the human network	Put the emphasis on training and network support entrepreneurship success

3.3 시사점

Bridge 사례를 통해 명예퇴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 인력을 창업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지원 환경구축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내의 시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주도로 운영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기업 주도형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시니어 기술 창업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시니어들의 창업성공에 중심으로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술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첨단 분야는 대기업보다는 창업기업이 혁신적 연구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 내 사내벤처 제도 및 이를 통한 새로운 기술 도입의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기술발달에 따

른 민간기업의 시장적응력 증가를 위해 창업기업과의 적절한 교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노키아의 경우 기술발달에 따른 다양한 환경적응 미비가 기업의 도산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기업의 사회 환원 마인드 확산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노키아 재단의 사회 환원 마인드 확보로 조기퇴직인력을 위한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시니어 창업 지원을 위한 CI(Cooperate Incubator)와 CVC(Cooperate Venture Capital)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해외 사례의 성공요인을 통해 국내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시니어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언

4.1 기업 주도형 CBI(Cooperate Business Incubator)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수행목적은 창업기업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수행방법은 규모이상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창업교육, 창업보육과 엑셀러레이터가 융합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창업기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을 지원에 따른 기업 CBI의 목적은 기업내부 역량강화와 기업 외부역량 강화인 2가지 측면으로 분류되어 적용될 수 있다. 기업내부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기업 내부인력이 창업을 진행하는 경우로 조기퇴직을 하는 인력에게 창업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내부 역량강화의 경우 조기퇴직 등을 준비하는 시니어 인력으로서 재직하는 인력의 경우 현재 근무기업의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경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Bridge 프로그램처럼 시니어가 원하는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에 창업을 통해 발생한 결과물을 기업의 새로운 사업 역량강화로 활용 할 수 있어서 보육기업과 상생하는 모델이다.

기업외부 역량강화 측면은 운영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향후 기업이 필요

시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외부역량 강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외부에서 역량 있는 시니어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는 현재 대기업이 특정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창업지원을 통해서 관련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할 수 있으며 현행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융합 상품 출시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선정된 창업기업의 경우 일부는 동일기업에서 조기 퇴직할 인력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본 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일부는 외부에서 공개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을 직접 보육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퇴직대상 인력을 기업 내에서 선발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요소이다. 이 경우는 보육하는 기업이 신사업 진출 등 창업기업과 시너지를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는 조기 퇴직에 따른 창업이수 교육을 수행 후 창업에 사업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우수한 사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연결해야 한다. 보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창업 후 작업 환경 지원과 더불어 인력, 재무,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으로 통해 지속적 성장을 유도해야한다.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Senior incubator program

Category	Contents
Objectives	Induced activation of senior startup
Purpos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private sector-led start-ups
Business	Manage some certain amount of start-ups with mixed incubator and accelerator program in the case of large and medium enterprises
Government Support	Investment costs related tax benefit support
Incubation g Company	Through the early retirement of incubating firm, select excellent start-up businesses start-ups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Training program: Provide training to help the senior pre startup o Incubating program: by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for start-ups o Accelerator program: To provide the technolog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due to the technical evaluation

4.2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 및 추진 방향

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추진방향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첫째, 특정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 수강자들만의 인력 Pool제를 활용하여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 환경 구축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 수강자들만의 인력 Pool제를 활용하여 서로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기 창업자와 연결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팀 또는 지원자들은 향후 엑셀러레이터 등 연결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셋째, 기존 정부가 운영하는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시니어 재 취업 시 지원해 주는 급여 지원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본 프로그램의 펀딩지원의 경우 각 기업들에게 비용 출자를 통하여 정부소요 예산의 최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3 제안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은 정부, 프로그램의 소비자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과 보육기관 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이다. 사회적 분위기와 변화를 고려하여 준비된 시니어 예비창업자의 육성이 향후 퇴직자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기업 등이 창업기업 육성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자생적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창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창업에 대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직원

복지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조기퇴직을 진행시에도 기업이 직접 창업교육을 제공해 주는 문화가 형성될 때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보된다. 또한, 기업이 고용 인력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복지 혜택으로 생각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본 프로그램의 소비자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등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둘째, 동일 기업 내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을 해당기업에서 재활용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 셋째, 창업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창업보육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투자 등 창업관련 네트워크 연결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증가한다. 다섯째, 다양하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로 진입할 수 있다. 여섯째, 자기개발 교육을 통해 진로 및 향후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확보할 수 있다. 일곱째, 향후 창업을 위한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육기업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보육운영 기업의 경우 사회적 환원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보육운영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 등을 통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육운영 기업이 창업기업을 통해 관련된 사업연계를 통한 기업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시니어가 갖고 있는 사회생활의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 출현을 통해 시니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 등을 통해 구체화할 때 시니어 창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시니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산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창업지원 현황을 기반으로 시니어 창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경우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요인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의 재직경험을 확보한 시니어 창업자들이 벤처기업으로 진입 가능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니어 창업의 해외성공 사례로서 핀란드의 Bridge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주도가 아닌 노키아 재단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시니어 창업을 유도하여 핀란드가 중소기업 성장 및 규모 증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국내의 경우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부주도로 전국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의 한계요인 개선을 통해 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시니어 창업 프로그램이 CBI와 CVC 기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주도형 CBICooperate Business Incubator)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시니어 인력에 대한 창업교육을 제직하고 있는 기업에서 제공하여 창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창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니어 인력의 활용뿐만 아니라 창업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형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시니어 창업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제시로서 연구 결과로서 의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해외 사례 프로그램 1건과 비교하여 제안 한 것으로 향후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를 통해 국내에 적절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Changgoo An, Growth Fund Amendments ladde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3.
- [2] Hoon Back, Past government policies Comparative Study of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KOSBI, 2012.
- [3] Boram Geun, Crowd funding legislati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us and trend analysi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2013.
- [4] Dohun Ha, Using data from the business strategy, SKT, 2014.
- [5] Jaesun Han, Big data startup, KAIST, 2014.
- [6] Hyun suck Jin, Mobile Business daunting challenge for new revenue models, Mobile loo, 2014.
- [7] Dohyun Kang, Re-challenge support business venture plans, Ministry of Science, 2014.
- [8] Yooshep Kang, Creative economy entrepreneurship ecosystem Korea,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 [9] Ryulee Kang, ICT trends in venture capital ecosystem, 2013.
- [10] Youlee Kang,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of entrepreneurship, 2012.
- [11] Gaprea Kim, UK social investment market implications of development policies,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13.
- [12] Geun Kim, Gapsu Le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echnology start-ups,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4.
- [13] Hanjoo Kim, Innovation support policies of Israel, 2012.
- [14] Jeapil Kiml, The impact of the crisis on the Nokia Finland, DIGIECO, 2012.
- [15] Jongwoon Kim, Support system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3.
- [16] Seoung keung Kim, Central challenge of youth culture, 2013.
- [17] Youngjung Kim,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Analysis of the impact and Revitalization of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4.
- [18] Youngsoo Kim, Survey of Korea Venture Firms in 2013, 2013.
- [19] Duck huan Lee, Entrepreneurship ecosystem,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 [20] Gihoon Lee, Technology holding company operating manual presentation, Gangwon Technology Hodings, 2013.
- [21] Jungsoo Lee, Start-up Analysis of Big Data, 2014.

- [22] Sanggil Lee, Step-by-step for the activation of the venture ecosystem use and expected effects of tax incentive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 [23] Seonghuan Lee, The secret to enable innovative entrepreneurship,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3.
- [24] Hyunsook Lee, Training of entrepreneurs through innovative entrepreneurship Revitaliz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3.
- [25] Yoonjoon Lee, Status and Problems of entrepreneurship,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
- [26] Gillim Park, Ecosystem changes and implications of entrepreneurship in Finland,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3.
- [27] Jeasung Park, Establishment of the American College Success Factors and Implications,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3.
- [28] Changsoo Seo, University Entrepreneurship Center Revitalization in the final repor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2.
- [29] Jongkook Song, Technology start-ups and venture ecosyste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3.
- [30] Outcomes and future policy challenges Venture draft measures, Joint Interagency, 2014.
- [31] Creative direction and growth of the financial ladder Utilization of Funds data, 2014.
- [32] Data store distribution Agency Services, 2014
- [33] Start-up support activities at home and abroad, Korea Database Analysis, 2014.
- [34] Using data from the business strategy, 2014
- [35] Agenda for re-challenge measures, Joint Interagency, 2013.
- [36] Presentation material growth fund ladder, KDB Asset Management, 2013.
- [37] Venture capital plan ecosystem virtuous cycle, Joint Interagency, 2013.
- [38] J. S Kim, D.H Hong,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rocess of corporate venture capital, 2014

유 순 덕(Yoo, Soon Duck)



- 1991년 2월 : 국민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원 수학과 (이학석사)
- 1995년12월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응용수학석사)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IT 융합학과 (공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한세대학교e-비즈니스학과교수
- 관심분야 : 전자금융과 결제 PG(Payment Gateway), 기업지원 정부정책 보안 인증 빅데이터
- E-Mail : harry-66@hanmail.net

최 광 돈(Choi, Kwang Don)



- 1987년 2월 : 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경영정보학과(경영학석사)
- 2001년2월 :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MIS전공 (경영학박사)
- 2002년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바일비즈니스모델 소셜커머스 클라우드컴퓨팅 성과평가 ERP, 빅데이터
- E-Mail : kdchoi@hansei.ac.kr